

글. 봉주희 Bong, Joo-hee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봉주희건축(Joohee Bong Architects, New York+Seoul) 대표

‘실용적 유토피아’ 건축전시회 보고서

‘Practical Utopias; Global Urbanism in Seoul, Hong Kong, Shanghai, Singapore, and Tokyo’ Exhibition Report

행사명	Practical Utopias: Global Urbanism in Seoul, Hong Kong, Shanghai, Singapore, and Tokyo(실용적 유토피아)_건축 전시회		
일시 / 시간	2014년 10월 22일 (수), 13:30 ~ 21:00		
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 롯데월드타워 / 롯데호텔 월드		
프로그램	Programs	장소	Contents
	Program Part 1	DDP_ 갤러리 문	- 개막식(환영사, 축사, 리본 컷팅식)- 전시 투어
	Program Part 2	DDP 주요 공간들	DDP 건축투어
	Program Part 3	DDP_ 나눔 공간	포럼
	Program Part 4	롯데월드타워 홍보관 & 51층	롯데월드타워 답사
Program Part 5	롯데호텔 월드	만찬 및 환송	
주최	대한건축사협회(KIRA),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AIA NY Chapter)		
후원	롯데물산		
참석자	대한건축사협회(KIRA),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AIA NY Chapter),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 국내외 내빈들(건축계, 학계, 정부관료)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AIA NY Chapter)와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공동주최한 글로벌 건축전시회(Global Architectural Exhibition)가 서울의 가을하늘 햇살 아래에서 열렸다. 이벤트는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디자인한, 서울의 랜드마크 건축물 중 하나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The Dongdaemun Design Plaza, DDP)에서 개최된 ‘Practical Utopias(실용적 유토피아)’ 건축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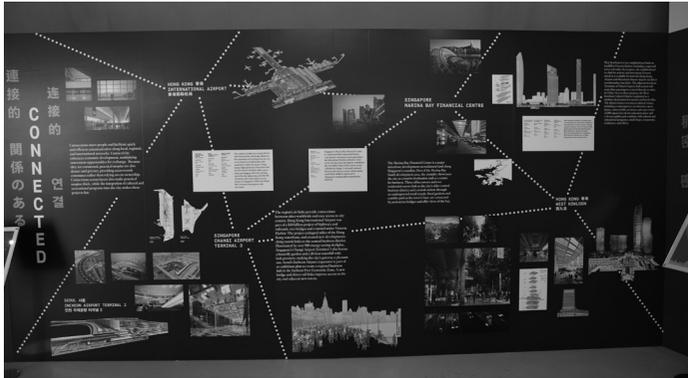
이 전시회는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가 2013년에 시작한, ‘글로벌 도시/글로벌 건축활동(Global City/Global Practice)’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하고 있는 뉴욕과 아시아의 글로벌 도시들 간 문화적 그리고 교육학적 교류를 위한 글로벌 순회 건축전시회(Global Travelling Exhibitions) 기획의 일환이다. 즉, 아시아 5개 도시(서울, 홍콩, 상해, 싱가포르, 동경)의 최근의 다이나믹한 발전상을 통해 바라보는 ‘Practical Utopias(실용적 유토피아)’에 대한 전시다.

2013년 뉴욕시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됐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

전시는 다섯 가지의 테마, ‘Green(녹색)’, ‘Thick(두꺼움)’, ‘Fun(즐거움)’, ‘Connected(연결)’, ‘Dense(밀집)’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도시들이 빠른 성장 속도와 변화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반응하고 있는지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더불어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방향(new trends)을 전망한다. 전시된 프로젝트들은 오늘날의 도시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도시 경험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독특한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이는 미래의 아시아 도시들과 전 세계 도시들의 개발계획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 글로벌 순회 전시회는 2015년 봄, 홍콩의 홍콩과학기술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KUST)의 춘계예술축제(The Spring Arts Festival)의 메인 행사로 선보이게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 배포될 책자와 함께 상하이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은 이번 전시를 건축의 메카인 뉴욕의 미국건축사협회 지부(AIA NY Chapter)와 함께 서울에서 공동 주최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미국건축사협회(AIA)와 2008년부터 건축사계속교육 및 시험제도 등 건축사 제도 전반에 대한 교류를 지속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양 단체 간 정보, 학술, 그리고 문화 교류에 대한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2013년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 회장, 질 러너(Jill Lerner)는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지속적인 유대와 협력관계를 표명하고, 아시아 도시들 중에서 서울의 역량에 대해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AIA New York Chapter)와 2014년도 회장인 랜스 제이 브라운(Lance Jay Brown, FAIA)은 오늘날 아시아의 도시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파트너십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아시아의 도시화 영역에서 서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라며 긍정적인 의사로 화답했다.



Practical Utopias 테마 - Connected (연결)

이번 'Practical Utopia(실용적 유토피아)' 글로벌 순회 전시회의 서울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건축인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건축적 그리고 도시적 맥락과 콘텐츠 안에서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창작(Create)/발명(Invent)/설계(Design)해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 도시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및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소통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풍요로운 성과들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시아의 도시들은 오래된 구조와 새로운 것, 동양과 서양적 이슈, 전통과 신기술이 충돌하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복합성과 융합(Complexity and Fusion)은 앞으로 격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생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이 시점을 5,000년 역사의 맥락에서 중차대하게 받아들여 글로벌 대도시(Global Metropolis)와 아시아의 도시화(Asian Urbanization) 선상에서 'Korean Utopia(한반도 유토피아)'의 건축적, 도시적 정체성(Architectural and Urban Identity)과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하길 바란다.

프로그램별 주요사항

■ Program Part 1

- Contents : 개막식(환영사, 축사, 리본 컷팅식) & 전시 투어
- 장소 : DDP 갤러리 문
- 참석자 :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질 러너 2013 AIA 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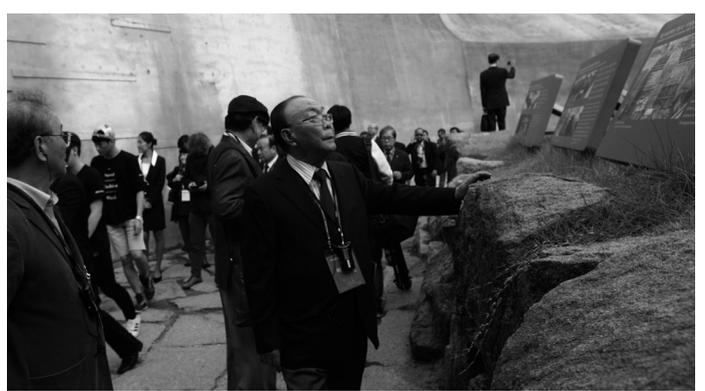
욕지부 회장(Jill Lerner, Former President of the AIA New York Chapter), 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회 회장(Tan Pei Ing, President of ARCASIA), 사티루트 누이 탄다난드 아시아건축사협회 차기 회장(Sathirut Nui Tandanand, President-Elect of ARCASIA), 승효상 서울시 총괄건축사/이로재 건축사사무소 대표,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이원우 롯데물산 대표이사, 신범식 건축학교육인증원 원장, 이상정 前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종률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회장/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김만성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등



국내의 내빈 참석자 기념촬영

■ Program Part 2

- Contents : DDP 건축투어
- 장소 : DDP 주요 공간들
- 투어코스 : 갤러리 문(전시장) → LED조명탑 → 이간수문 발굴지 → 알림터 내부 → 동굴터널 → 8거리 → 디자인 나눔터 → 나눔관 (포럼 행사장)



DDP 건축투어 - 이간수문 발굴지

■ Program Part 3



포럼장 - 내부공간 디자인과 분위기

- Contents : 포럼
- 장소 : DDP_ 나눔 공간
- 진행 : 강연자들의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과 토론형식으로 진행
- 포럼 내용 요약

- Introduction; AIA 회장 헬렌 드레일링(Helene Dreiling) 인사말
 “유럽과 미국의 도시발전에 이어 현재는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Practical Utopias’ 전시는 공공의 안전(Public Health, Safety, and Welfare)을 도모하고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재확인하는 기회로서, 모든 도시 거주자(Urban Dwellers)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강연 1: 질 러너 前 AIA 뉴욕지부 회장
 “15년 전에 처음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스케일과 독창성에 많이 놀랐다. 하지만 도심화 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자각이 부족한 것을 느꼈고,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ractical Utopias’ 전시의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다.”

뉴욕 전시회에 소개된 건물들은 홍콩의 IFC센터와 Hysan Place, 도쿄의 롯본기 힐스 프로젝트, 상하이의 WFC, 서울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서초동 삼성본관, 그리고 인천 송도의 다양한 건물들이다. 뉴욕에서는 블룸버그 시장이 제안한 시내 모든 곳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만드는 프로젝트 등, ‘Plan NYC’ 정책과 ‘Active Design Guideline’에 참여하였다. Highline 재개발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태풍 샌디 이후 재난

에 대비한 안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전거 공유프로그램이 시내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외부공간이 활성화된 링컨센터 플라자, 허드슨 야드 재개발사업,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역과 연계되는 One Vanderbilt Place 등이 있다.”



■ 강연 2 : 승호상 서울시 총괄건축가 / 이로재 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양에서 도시의 발전은 기원전 5,000년인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폼페이 유적지를 둘러보면 이상적인 도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당시 로마시대 도시의 형태들은 로마군단의 주둔지였던 런던과 파리 등의 도시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세의 이상도시라고 간주되던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Palermo) 시와 사상가 토마스 무어(Thomas Moore)의 ‘유토피아’ 개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은 매우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었고, 평지를 바탕으로 한 단일 중심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세의 유토피아 개념은 현대의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발전했고, 르코르뷔지에의 파리지 마스터플랜과 현대의 수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양의 유토피아적인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지를 묻고 싶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근의 신도시 공동주거 프로젝트의 사례에서 보듯, 현대적인 도시 개발은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서울에는 여전히 이러한 신도시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투시도법이 개발되면서 집중적인 세계관을 만들었지만 우리 선조들의 민화(책장)를 보면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Malacca) 시 등의 오래된 도시들에서 발견된다.

오늘날, 건축사 없이 건설된 산동네들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의 표어였던 ‘Less Aesthetics More Ethics’와는 반대로 인간의 공동체여야 하는 도시가 경제적인 이득을 우선하는 부동산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Instant City’는 두바이의 개발 현황에서 극명하게 보인다. 우리는 ‘터무니’ 혹은 ‘地紋(Landscipt)’이라고 불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서울건축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역사도시, 수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하는 서울이라는 곳에서 공동가치와 역사성 등 10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적으로 만든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중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 함부르크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유대인 학살 추모공원(The Holocaust Memorial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Peter Eisenman 설계)처럼 기억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강연 3 : 조나단 솔로몬(Jonathan Solomon)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SAIC) 학과장

“직전 발표를 통해 ‘도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커뮤니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다. Practical Utopias 전시

는 기본적으로 미국 설계회사들의 동아시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동아시아 글로벌 도시들의 건축프로젝트들을 통해 글로벌 어바니즘 (Global Urbanism)의 현황과 특징을 재조명하였다.

미국의 900 North Michigan이나 한국의 잠실 롯데월드 프로젝트 등은 다양한 기능을 블렌딩하여 도시를 창조하는 실험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도시창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Hybrid Building’이라고 불리는데, 공통점 및 교훈은 다음과 같다.

- 친환경건축 - 청계천의 사례; 지속가능성과 개방성 지향
- 밀도 - 도쿄 롯폰기 힐스의 사례; 과거와 단절된 발전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 다양한 레이어(Multiple Layer) - 홍콩상하이은행 사례(Norman Foster 설계)
- 과거 문화를 재현 - 상하이 신천지 쇼핑센터 사례
- 프로젝트에 있어서 인테리어의 중요성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파이낸셜 센터 사례(KPF 설계)



■ 강연 4 :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최근의 도시발전 양상을 보면서 ‘Why Not a City of Super Tall Tower’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부산 해운대의 사례에서 보듯 초고층건물은 한국에서 이미 일반적이다. 1750년대에 당시로서는 초고층인 7층

건물이 파리에 건설되었는데, 거주하는 층에 따라 신분 구별이 가능할 정도였으며, 고층에 대한 증오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르코르뷔제의 ‘Revolution City’는 고층주거를 제안하였고, 이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마포아파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70년

대 초에 지어진 12층 높이의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아파트 발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고층아파트는 여러 측면에서 가장 한국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 중심의 도로를 설계하는 대신 보행자에게 친숙한 가로경관 설계를 해야 한다.

고층건물의 장점으로는 경제성, 도시경쟁력 회복(영국 카나리 워프 사례), 복합용도 개발, 상징성·마케팅성(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사례) 등을 들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고층건물이 위성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혹자는 초고층건물이 건강에 해롭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수행한 아주대학교병원 환자 34,000명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조사에서 건물의 높이와 건강에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결론적으로 르코르뷔제가 주장한 도시와는 달리 새로운 도시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로친화형으로 개발해야 하고, 복합용도 개발과 고밀도 개발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Program Part 4

- Contents : 롯데월드타워 답사
- 장소 : 롯데월드타워 홍보관 & 51층
- 홍보영상 관람, 전시물 관람, 51층 투어



롯데월드타워 51층 현장답사

■ Program Part 5

- Contents : 만찬 및 환송회
- 장소 : 롯데호텔 월드
- 사회자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오동희 위원장
- 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만찬을 끝으로 모든 행사의 프로그램을 마쳤다. ㉮